

통권 8호 • 2016년 봄호

동행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호: 호호호 하하하 흐흐흐 울고 웃으면서 지내온 세월

스: 스스럼없이 삶을 뒤돌아 봤을 때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다

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살았다고 말한다

스: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인디언의 기도문

수우족 인디언의 구전 기도문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 숨결이 세상 만물에 생명(生命)을 줄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여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 보다 더 위대해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나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하소서



발행일 : 2016년 5월 20일 | 발행인 : 김성원 | 편집인 : 유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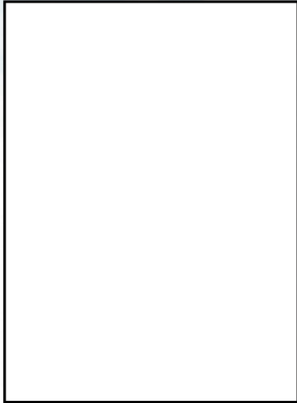
발행처 :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편집 · 인쇄 : 동문인쇄 T. 051-469-8963

통권 8호 • 2016년 봄호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표지

CONTENTS

권두시	02	인디언의 기도문 수우족 인디언의 구전 기도문
팀원들의 이야기	04	후두암이란? 구수권(분도) 이비인후과 주임과장
	06	아침이슬 조예림(호스피스병동 간호사)
	07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병도우미 제도의 도입과 운영
	08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란? 이경복(가정형 호스피스전담)수녀
	10	11월의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황마리아(호스피스 간병도우미)
	11	호스피스란 무엇일까? 배성직(호스피스 간병도우미)
환자와 가족의 사랑이야기	12	고통을 함께 나누어요 환자보호자 이○○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가입안내	13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NEWS	14	
자원봉사자들의 NEWS	15	
진료시간표	16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들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후두암



이비인후과 주임과장
구 수 권 (분도)

신이 주신 가장 훌륭한 악기 : 후두

인간의 목소리는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고유한 지문과도 같다. 눈이 세상과 통하는 창이라면 목소리는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이다.

후두암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발견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어린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멧 떨어지게 부르는 노래 한 자락 하지 못한다면 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신이 내린 가장 훌륭한 악기인 후두를 잘 보존 해야겠다.

인간의 목소리는 허파를 통해 내뿜는 공기를 후두의 성대가 진동함으로써 생기게 되고 이 소리는 혀, 입술, 구강, 비강, 부비동 등을 통해 공명하여 그 사람의 고유의 목소리를 만들게 된다. 피리의 떨림 판에 해당하는 것이 후두의 성대이며 감기나 축농증 등이 있을 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은 소리를 공명시키는 부비동에 고름이 차이거나 코가 막혀 정상적인 공명을 못하기 때문이다.

후두는 해부학적으로 뒷면의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후두개란 뚜껑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는 뚜껑에 해당하는 후두개가 열려 호흡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고 삼킬 때는 후두개가 닫혀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여 음식 섭취를 가능하게 한다. 갑자기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래가 들려 심한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는 후두개가 닫히기 전 음식이 기도로 일부 흡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후두암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

후두암은 앞서 설명한 떨림판에 해당하는 후두의 성대에 생기는 암으로 원인은 흡연과 음주이다. 그 중 흡연은 동물실험에서 증명되었으나 몇 십 년 동안 담배의 유해물질이 후두를 통해 허파를 통과하면서 후두를 변성시키고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후두암의 첫째 신호는 무엇일까?

일초에 수백, 수십 번 진동하는 성대는 미세

한 변성과 균열에 의해서도 소리의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대에 생기는 암 덩어리는 목소리의 변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즉 쉼 목소리가 지속되고, 쉽게 없어지지 않게 된다. 평소 흡연하는 중년의 남성이 2주 이상 쉼소리를 호소한다면 한번쯤 의심해 볼 일이다.

후두암이 진행되면 성대의 좁은 공간을 막게 되어 앉아서도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고 여러 장기로 퍼져나간다. 인체는 이를 조금 더디게 퍼져나가게 하고 몸의 주인에게 심각한 병이 걸렸음을 알려 주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경부 임파절이 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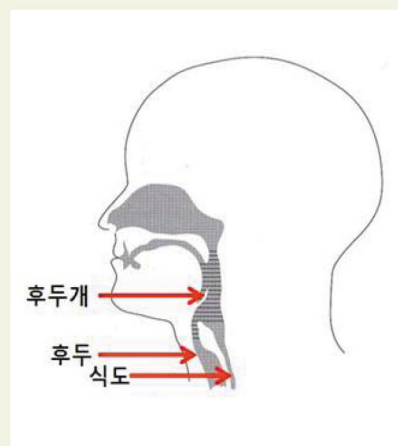
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목에 여러 군데의 정류장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정류장이 없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정류장이 많은 완행버스처럼 경부 임파선은 후두암이 빠르게 전신(全身)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 또한 목에 통증을 동반하는 혹을 만들어 냄으로써 주인에게 빨리 치료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우리 몸은 이처럼 흡연 끝에 오는 이물감, 기침, 가래 등의 일차 경고를 주고, 다음은 쉼소리를 또 다음은 목에 불쑥 솟아 오른 경부 종물로 여러 차례 신호와 관심을 보인다. 우리는 이런 신호를 무관심으로, 삶의 무게로, 때로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써 회피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종종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후두암의 여러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진단은 간단한 후두경 검사, CT, 조직검사 등으로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시기가 중요한데 일찍 발견하여 수술, 방사선치료를 하게 되면 후두의 기능, 즉 말하는 기능, 호흡하는 기능을 유지 할 수 있지만 병이 진행되면 때로는 후두를 완전히 제거하고, 따로 호흡하는 곳을 만들어 줘야 함으로써 말하고 호흡하는 기능을 잃게 된다.

후두암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발견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면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어린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멧 떨어지게 부르는 노래 한 자락 하지 못한다면 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신이 내린 가장 훌륭한 약기인 후두를 잘 보존 해야겠다.



아침이슬

조예림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빛보다 먼저왔다가는
다가갈 수 없는 생명

인기척만 나도
제자리서 발돋움하는 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자리거두는 아침이슬

내가슴 뜨거운데
저녁노을은 야속하기도 하지

생의 무게를 스스로 달아
물음표만 남기고 답이 없다

삶이 무거운 자들을 위해
가벼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많은 영혼이 되어
또 다른 생명에 입김을 불어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완화도우미 제도의 도입과 운영

도입배경

1.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병(비)부담은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돌봄의 의료적 요구가 많은 말기암 환자가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자에게 적합한 요양병원/요양원 등을 이용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간병 문제이다.
2. 말기암 환자는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일상생활수행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간호 요구 뿐 아니라 체위변경, 식사, 위생, 안전 등 수발(간병)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협소한 보호자용 침대에 의지해 하루 24시간 돌보는 가족들은 예외없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소진을 겪고 있다.
3. 가족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다수의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전문적인 돌봄 기회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4. 간병문제의 해결은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을 차별없이 이용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본모형

1. 암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완화의료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시간, 실습 20시간)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완화의료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완화의료 보조 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을 한다.
2. 완화의료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의 상주는 제한하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는 허용**
3. 입원 암환자 본인부담률(산정특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간병수가의 5%를 환자가 부담

기대효과

1. 병상가동율 증가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율이 확대 될 것이다.
2.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 가족에 의한 돌봄의 비전문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예방
 - 욕창발생 억제(체위변경 증가)
 - 부적절한 음식섭취에 따른 흡인의 위험 감소
 - 보행 및 운동 시 안전사고 위험 감소
 - 감염관리의 취약함 개선
 - 구강위생 개선

출처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팀원들의 이야기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3월 2일부터 ‘말기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란?

이경복 수녀
(가정형 호스피스전담)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란?

가정형 호스피스는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원을 이루어 대상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말한다. 퇴원 가능한 환자가 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입원 등을 피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며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아 가정에서 집중적인 호스피스서비스(간호 및 처치, 교육지지, 전인적 돌봄 등)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목표

- 1)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 2)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 3) 호스피스가 필요한 말기암환자와 가족 발굴 및 조기 개입
- 4)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불필요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경감

서비스 대상자

- 1) 등록 기준 : 암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대상인 말기암환자와 가족으로서 가정에서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
- 2) 등록 절차 :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계	의뢰경로	절차
설명	구분 없음	환자의 담당의사는 퇴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연속적인 돌봄이 제공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를 설명함
의뢰	구분 없음	환자가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적절한 가정형 호스피스에 의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퇴원요약지 등)
동의	타 기관	타 기관에서 의뢰된 환자는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담당의사의 진료를 거쳐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함

단계	의뢰경로	절차
동의	기관 내	기관 내에서 의뢰된 환자는 외래, 환자가 속한 병동 또는 응급실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의 진료를 거쳐 「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에 서명함으로써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신청
등록	구분 없음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 담당의사의 처방에 근거해 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하며, 최초의 가정방문 일정을 협의함

주요 서비스 범위

정기방문 외 환자와 가족들의 상태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24시간, 주7일 전화 상담으로 환자 개인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신체적(통증 및 신체증상) 돌봄
- 2) 심리적(지리적 상담 및 가족) 돌봄
- 3) 영적(종교적/실존적) 돌봄, 종교의식 지원 및 상담
- 4) 사회적 돌봄 : 제도적 자원연계 및 자원 활용 연계
- 5) 임종 돌봄
 - 임종 준비 교육과 임종증상 관리
 - 사후처치 및 장례절차 안내
- 6) 검사관련 업무
 - 처방된 검사 현장 실시 또는 검체 채취
 - 검사 결과 설명
- 7) 장비 대여 또는 연계
- 8) 연계 및 의뢰
 - 입원 등 집중적 돌봄 연계
 - 협진 및 전원 의뢰
- 9) 사별 돌봄
 - 약품(마약 포함) 및 장비 수거
 - 사별가족 위험도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 사별가족을 위한 정신, 심리사회, 영적 돌봄 제공

기타 : 가정에서 임종을 원한 경우

- 1) 대상자가 가정 임종을 원하는 경우 환자 상태를 신중히 평가하고, 가족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임종계획을 수립한다.
- 2) 다양한 임종 징후를 가족에게 교육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3) 임종 징후 관찰 시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준비 등을 안내한다.
- 4) 24시간 전화 상담 및 잦은 방문을 통해 가정임종을 돕는다.
- 5) 가정 임종 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사체검안서 발급 절차를 안내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통하여 다학제적인 팀접근으로 말기암 환자가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의미를 갖도록 돌보며, 통증조절 및 증상완화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월의 **신타할아버지** 선물

황마리아 (호스피스 간병도우미)

앗! 뜨 거~ 당감동 요양병원 밤번을 마치고, 벵룩신문 광고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 교육’을 보고 한걸음에 달려와 가톨릭간병인회 사무실에 서류를 접수했다. 20년 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하고, 2015년 11월 2일부터 부산성모병원 10층 완화의료센터 완화도우미 생활이 시작되었다.

〈좌충우돌〉

첫째, 마음은 하늘을 찌르는데 병원시스템과 동료들 사이의 유대관계에서 조화롭지 못하고 무언가 부대꼈다.

둘째, 환자와 가족을 돌본다는 명분 아래 보호자 발마사지 등 매뉴얼에도 없는 장끼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다.

셋째, 다정(多情)도 병(病)인양 남자환자 병실에서 과잉 친절로 오해가 발생하였다.

넷째, 간호조무사를 공부하는 중이라 밤번만 신청하여 완화의료센터 관계자들과 동료들에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다섯째, 밤번 근무 때 새벽부터 병실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느라 밀대걸레질을 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곤한 잠을 깨워 민원이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도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라는 질타와 만류를 하였지만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룩한 일이라고 강력히 맞서며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갑죽거렸다. 좌충우돌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백의의 천사(간호사)와 현존하는 성모님(동료들)을 보면서 환자들의 생(生)과 사(死)의 길목에서 어느덧 5개월이 지나 6개월째 완화도우미 생활을 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도우미 교육 때 수녀님께서 “여러분은 각자의 세상 살이에서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의기도〉

1. ‘세상의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사랑의 전도사’로서 사명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3. ‘하늘 문’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가 영원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호스피스란 무엇일까?

배성직 가브리엘 (호스피스 간병도우미)

“호스피스란 무엇일까?”

“호스피스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던데 나도 할 수 있을까?” 평소 이러한 의문이 마음속에 항상 맴돌고 있었던 어느 날, 성당 주보에 게재된 ‘호스피스 완화도우미 교육’에 대한 안내를 보고 교육을 이수하여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도우미 일을 시작하였다.

어색하고 서툴렀던 시간들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진 지금, 교육기간 중 강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던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배우고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저 일상적인 일들을 기계적으로 능숙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충분히 고마워하시고, 이 또한 우리 도우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같은 병실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라도 사람 수 만큼이나 병의 증세도 다양하고, 개인의 성격만큼 원하는 바도 다른데 환자분들을 돌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는 유난스럽지 않더라도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다.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시나 실낱같은 기적의 희망을 가지고,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픈 오늘을 즐겨워하실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같이 즐겨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아파지면 같이 아파하듯 손잡고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 할 때는 한밤중에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닐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이 최상이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들 도우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므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만약 그분들이 길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신 제 얼굴에서 혹시라도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떠나신다면 그 큰 허물을 어떻게 씻을까? 마지막 며칠간만이라도 좋은 기억을 심어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길 떠나지 않은 환자들을 만나러 간다.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멋진 표정을 지으면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겐 평화의 안식을 주시고 저에겐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짊어져 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고통을 함께 나누어요

환자보호자 이○○

나는 지금 부산성모병원 10층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1005호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파리한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 이○○이다. 밖은 따스한 햇볕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한들 한들 바람에 다투어 춤을 추는 화사한 봄날이다. 병실 안은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무언가 치료를 하고, 다정한 웃음으로 위로와 사랑을 건네고 있다. 그리고 병실의 분위기는 웃음을 잃고, 불안해하며 피곤한 표정으로 환자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이 어떤 날은 화사한 봄의 분위기, 어떤 날은 차가운 겨울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죽는다는 것은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소 다정한 모습으로 웃음을 머금고 말을 걸어오던 아내는 이제는 말없이 누워만 있다. 하루가 다르게 ‘재’ 같이 사그라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만감(萬感)이 교차하고, 후일에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니 밀려오는 아픔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들다.

자식들과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굳이 내가 병상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아내의 아픈 고통을 절반이라도 나누어 가진다는 생각이다. 길지 않은 남은 시간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떠나게 하려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여보! 당신이 먼저 갈뿐 우리는 어느 세상, 어느 곳에 있던지 영원한 동반자요, 반려자임을 잊지 말아요.” 하고 다짐한다. 또 이것이 먼저 가는 아내에 대한 대접이요 도리(道理)라고 생각한다.

이런 착잡한 생각에 몰두할 때 나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병원의 의료진과 수녀님, 관계자분들의 사랑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쾌적한 환경과 수없이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 특히 매주 2~3회 이루어지는 무용과 음악회 등의 위안 행사는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친절한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정성과 사랑은 모두가 천명(天命)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다. 나는 무엇으로 이들의 사랑과 정성에 보답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곳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모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간병도우미들에게 깊이 감사와 존경을 드릴 것이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후원기금 참여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명 : _____

금액 : 일금 _____ 원 (₩ _____)

□ 일시기부 :

□ 정기기부 : 매월 _____ 원, _____ 회(년)

※ 납부안내 :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동의서명 :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약정인

(서명)

※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 전화 Tel 051-933-7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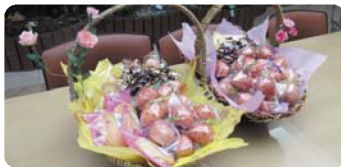
▶ 팩스: 051-932-8636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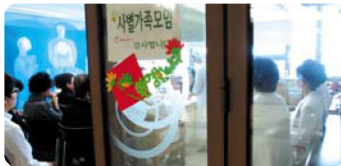
병자의 날 행사 (입원환자에게 간호사들이 카드와 선물 증정)



부활행사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활계란과 쿠키선물)



1,2차 사별가족모임 (2016년)



노인정 방문 (용호동 용문, 용진 노인정....)



2016년 제4차 호스피스 간병도우미 교육



2016년 8권역 합동 통증캠페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주제 : “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인가?”

○강사 : 전영주 수녀



제16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행사 참여 및 우수자원봉사자상 정미경(아폴로니아) 수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



입원안내

본원 입원환자



타 기관 환자



구비서류 : 1.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2. 최근 검사자료(CT나 MRI 복사)
3.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4. 의무기록사본 등

완화의료센터 진료 문의

- 입원형 : 혈액종양내과 진료 051) 933-7253
- 가정형 : 가정의학과 진료 051) 933-7971

진료상담

- TEL. 051) 933-7133, 7100
- 가정형 상담 : 051) 933-7969
- FAX. 051) 932-8636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5:00
-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2:30
-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진료예약

- TEL. 051) 933-7087

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동래방면 131번
- 마을버스 남구 2, 2-1, 8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해운대방면 39번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EL: 051) 933-7114 FAX: 051) 932-8600